02 우리 아이 자신 있게 말하기

명곡에 다가가기

1. 카뮈유 생상스 <동물의 사육제>

1) 14개의 짧은 악장으로 이뤄졌으며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여러 악기로 표현함

2) 변칙적인 악기 구성으로 진행이 지루하지 않아
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중 하나

2.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여 자신 있게 말하기

1) 음악 기호를 이용하여 엄마와 아이가 음악 속의 사자가 되어보기

① 크레센도(crescendo) : 점점 크게
② 데크레센도(decrescendo) : 점점 여리게

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음악이 커질 때는요,
엄마 사자나 아빠 사자처럼 제스처를 크게 해주시고요.
음악이 작을 때는 아기 사자처럼 제스처를 작게 해주고
몸으로도 음악을 듣는 방법을 익혀보세요

★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에 따라 몸짓을 만들어내고 곡을 이해한다면
아이는 자연스럽게 제스처 사용에 익숙해지겠죠?

엄마랑 아이랑 직접 해보기

1. 복식호흡

1) 오른손은 가슴에, 왼손은 배에 올리고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심

★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
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

★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체크해주세요

2) 배에 가득 찼던 바람을 천천히 후~ 소리를 내면서 내뱉음

★ 입학 전,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.
하지만 이 코끼리 나팔 장난감을 이용한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!

2. 아이 맞춤 복식 호흡

코끼리 나팔을 입에 문 상태로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껏 나팔을 불게 함

★ 이렇게 코끼리 나팔을 이용해서 하루에 5번 정도 아이에게 복식 호흡을 시켜주세요. 이처럼 아이와 복식호흡을 하면 안정적인 호흡으로 말하기 때문에요, 목소리의 긴장감이 덜 묻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

3. 복식 호흡 발성법

임의로 가장 작은 소리 1부터 가장 큰소리 5까지 볼륨을 정함